동국대, 건학이념 구현 본격 나선다

이사회서 정관세칙 개정… 건학위 구성 가능

산하 학교 · 기관들 적극 동참
신임 의료원장에 채석래 선임
올해의 사업 예산안 승인확정
성우 스님, 발전 기금 쾌척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학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산하 대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등에 건학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9일 제334차 이사회를 열고 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건학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정관세칙 변경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관세칙에 건학위원회 목적과 운영, 사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법인은 산하 대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부속병원 등 각급학교와 기관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건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 사무는 법인사무처가 담당하며, 위원회 조직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재규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정관세칙 변경에는 교육 · 의료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명확화와 법사 임용에 '자격, 임기'를 반영하는 조항들도 개정 · 신설됐다.

건학위원회 설치가 이뤄짐에 따라 법인사무처, 동국대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등도 건학이념 구현 사업을 올해 주요 사업들로 예고했다.

법인사무처는 정관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2월 중 건학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 · 활동 계획을 정리해 올해 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학내 건학위원회 구성과 건학이념 실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관련 교양 교과 개발도 추진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건학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관련 교양 과목 · 통일 교재 개발을 올해 주요계획으로 내놨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서 △정관 변경 △동국대 의료원장 선임 △교원 인사 △법인직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2021회계연도 각급기관 예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의료원 시설대여(리스) 승인 △불용자산 폐기(매각) 승인 △의료미수금 대손상각 승인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관 변경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사장의 산하학교 겸직이 금지되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기존 3개월서 1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또한 대학평의회 위원으로 조교도 포함하게 됐다.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는 채석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동국대 의료원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의료원장 후보자를 모집했으며, 심사를 통해 6명의 후보자 중 채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채 교수는 제5, 7대 동국대일산병원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진단혈액학회장, 대한수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36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2021회계연도 각급기관 예산(안) 승인도 이뤄짐에 따라 법인 일반회계 204억 원, 동국대 서울캠퍼스 2294억 원, 경주캠퍼스 1080억 원, 의료원 3514억 원, 법인 수입회계 131억원, 산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423억원 등 총 7624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8억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법인 중간감사 이행계획과 올해 각 기관 중점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법인은 매주 산하학교 행정실장 주례회의 열고 학교 현안을 점검키로 했으며,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및 법인 감사를 시행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일산 바이오캠퍼스 발전을 위해 BMC발전위원회 구성하고 캠퍼스 단위의 준공허가를 추진한다.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후속 사업으로 'K-부디즘 문화콘텐츠' 사업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폐지 학과에 대한 원할한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사회 회의에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학교 발전 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성우 스님은 "지난 회의에서 이사 원명 스님이 거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하는 것을 보며, 저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기금이 동국대와 각 교육기관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故속행 노동자 49재 등 이주민 추모법회 잇따라

조계종 사회노동위 · 마주협 2월 7일 법련사서 추모재

지난해 12월 20일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추위에 숨진 故 누온 속행씨 등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단체와 다문화 법당 등을 주축으로 한 추모법석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대표 호산)는 2월 7일 서울 법련사에서 '故 속행 노동자 49재 및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는 린사로 스님이 집전한 캄보디아불교식 염불에 이어, 사노위 위원 스님들의 한국불교식 염불과 추모의식으로 진행됐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중들은 故 속행씨의 영전에 흰 국화를 올리고 절을 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참석자들은 속행씨의 넋을 위로하는 동시에 그동안 한국에서 죽어간 이름없는 이주노동자 모두에 대한 위로와 재발방지를 발원했다.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도 2월 7일 마하위하라 사원도 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담마끼띠 스님에 따르면 재한 스리랑카 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울증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로 인한 자살자만 20명에 달한다. 특히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고국으로도 가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게 된 이주노동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네팔도 마찬가지다. 일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네팔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및 자살 건수도 예년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네팔의 경우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네팔 노동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우르겐 스님도 현재 심근경색 등으로 투병 중이어서, 이주민들이 심리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캄보디아불교센터 주지 린사로 스님은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과 인력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인생과 인권, 인격을 생각해 주는 가운데 더불어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미얀마 사태 격화일로…승단, '쿠데타 반대'

미얀마평화승단, 2월6일 성명
시따구 佛法 아카데미도 동참
각 사찰 등 규탄 입장 이어져

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일으킨 쿠데타로 미얀마 전역이 통제된 가운데, 군부에 반대하는 미얀마 승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군부가 우 윈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등 정부 수장 등을 감금하고 반대파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규탄 여론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얀마 승단은 지난 2월 7일 처음으로 쿠데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 승려 한 명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교계는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쿠데타 반대 입장과 평화 발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얀마평화승단연합회(PSU)는 2월 6일 미얀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독재적인 군부의 법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얀마 평화승단연합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길로 갈 수 있게 승단의 목소리를 내고,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불복종 운동(CDM)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표했다.

미얀마의 정신적 스승인 시따구 스님을 따르는 불교인단체인 '시따구 佛法 아카데미'도 2월 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따구 아카데미는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있으며, 시따구 佛法 아카데미 단체도 시민들과 같은 마음"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와 정부를 시따구 불법(佛法) 아카데미 단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쿠데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시따구 아카데미는 특히 "국민의 평화를 우선하지 않는 조직은 올바른 조직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부가 나서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미얀마 만달레이 마쏘예잉 사찰의 스님들도 이번 군부 쿠데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을 본지에 제공한 미얀마전법사원 우웃따라 스님은 "본국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이 빨리 끝나기 위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 등 세계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ON · OFF 믹스' 신개념 노인복지 추진

2월 16일 종로 노인복지관
온라인 기자간담회서 밝혀
유튜브와 카카오톡도 활용
온라인병행 서비스를 제공
시니어의 디지털교육 전개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언택트 복지서비스를 선보인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이 새해 온 · 오프라인을 융합한 온 · 오프 믹스 복지에 나선다.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과 함께, 각종 행사의 온라인 전개 등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종로노인복지관은 2월 16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해 언론사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은 5개년 계획 소개와 함께 올해 온 · 오프 믹스 복지서비스 방침을 밝혔다.

관장 정관 스님은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복지노하우를 익혀 사업 계획을 짰다"며 "인권 가치 중심, 소통, 공존, 미래예측의 복지 프로세스 확립 등을 기치로 걸고 온 · 오프 믹스 복지서비스로 참여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겠다"고 소개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이미 개설한 유튜브채널 '종로의 품격'과 카카오톡채널을 활성화하고, 언택트 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시니어슈퍼스타종로 행사의 경우 유튜브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어르신 가정을 연결해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인권모니티링단 노인자원봉사 영상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상도 수상했다.

정관 스님은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맞춤형 디지털 에이징 교육도 확대해 기초, 심화, 키오스크 교육 등도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인문프로그램과 함께 어르신 장담그기 행사인 종로&장금이 사업의 레시피 e북 출간, 제4회 서울시니어연극제의 온라인 병행 추진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로노인복지관 측은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했을 때 40% 어르신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다. 코로나에서 16개 가정에서 IT교육을 진행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가 10인 이하 프로그램 진행이 되기에 전사적인 리터리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관에 오지 않아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로노인복지관은 강화되고 있는 복지 인권 증대를 위해 전사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5대 차별행위 규정 인권기반 실천체계를 정착시킨다. 어르신 중 남성이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남성 어르신을 위한 성평등 프로그램도 운영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등도 개소한다.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를 조성, 커뮤니티 공간 공유 등도 준비하며, 재택근무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문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 반응형 웹사이트 운영, 복지관 앱도 개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